



제19회 2009년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 안내

우(사)한국조경사회에서는 전국 조경인들의 화합, 정보교환 그리고 발전적 관계를 목적으로 매년 1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번 19회 「2009년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는 아래와 같이 잠실한강공원 트랙구장(마사토구간)에서 개최한다 하오니 관심 있는 협회 회원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행사명 : 제19회 2009년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
- 일 시 : 2009년 6월 12일(금) 13:30~19:40
- 장 소 : 잠실한강공원 트랙구장(마사토구간)
- 참가비 : 1인당 20,000원
- 참가방법 : 홈페이지(www.ksla.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ksla@chol.com) 이나 팩스(02-565-1713)로 접수
- ※ 자세한 사항은 조경사회(02)565-1712로 문의바랍니다.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등록 완료

(사)한국조경수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과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신청을 하여 2009년 5월 19일 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 민간자격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협회회원 및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취득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신도시」 종합조성계획 발표

parent.document.title = "「성수신도시」종합조성계획 발표 : 라펜트(Lafent) 라펜트 뉴스팀, 강진술_kegjw@naver.com | 기사입력 2009-06-22

한강, 중랑천과 맞닿아 있는 성수지역이 동북권 개발의 중심축이자 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계획 본격적으로 거론

지난 4일 서울시에서 대규모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발표한 지역 가운데 성수동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부지가 이르면 2010년 상반기 착공하여 2015년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완공될 예정이다.

도심 부작격 시설인 삼표레미콘 공장이 입지해 있던 성수동은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인 Waterfront Town의 주요 지점으로 인근에 서울숲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자연경관과 조망을 갖추고 있는 천혜의 입지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 세계적 자동차기업인 현대차그룹의 글로벌센터(사옥)가 들어서면서 낙후된 서울 동북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동북아의 전략적 거점기지로 글로벌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뿐 아니라, 그 효과는 성동구를 넘어 서울시 전체의 도시생산기반을 재편할 수 있는 막대한 유무형의 산업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 최첨단 글로벌 비즈니스도시 성동으로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자동차관련 글로벌 비즈니스의 전략거점(Hub)으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높이 540m, 110층의 초고층 타워로 최첨단 공간의 업무시설, 해외 바이어 등 비즈니스 이용객이 이용 할 수 있는 호텔을 포함하여 산업전시회, 공연, 패션쇼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컨벤션 센터, 자동차 전시 및 세계적 모터쇼 유치 등을 통해 지속적 관광수요를 창출할 오토테마파크, 아트센터 등 복합 업무·문화 콘텐츠가 들어선다. 이 사업들이 현실화된다면 한강과 서울숲을 연계한 세계적인 관광자원 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다.

서울시의 사업추진에 전폭적인 행정 지원

서울시에서는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협상위원회와 시·구·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180일간에 걸쳐 사전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성동구에서는 시의 추진계획에 맞추어 TF팀에 참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건립비에 대한 연차별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성수준공업지역 'R&D 新산업 메카' 조성

자동차정비, 인쇄, 신발, 섬유 등 중소형 영세산업이 주를 이루던 성수동 준공업지역이 산업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돼 IT 산업에 중점 육성하고 BI, R&D 산업과 제조 생산까지 연계하는 21세기형 신산업메카로 탈바꿈한다.

특히 이곳은 산업뉴타운으로 지정돼 구에서는 2014년까지 1,4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첨단 IT·BI 융합센터를 비롯하여 도로시설 확충, 공원녹지 조성, 공영주차장 건립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재된 공업시설을 집적화하여 도시환경을 광역적,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면 테헤란밸리~성수동 IT산업단지~공릉노안산업단지로 연결되는 IT라인이 구축되고 동북부지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다.

앞으로 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성수동 준공업지역 재정비 계획과 연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공장재배치를 통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주거와 공업기능이 조화롭게 재배치되는 도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2009년 말까지 산업개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의 작은 신도시 『행당도시개발지구』

한강과 중랑천이 맞닿아 있는 행당도시개발지구가 올초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가 한강변에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한양대 건너편 행당동 87-4 일대 낙후 지역으로 방치돼 있던 공장밀집 지역에 한강 르네상스계획과 연계한 행당도시개발지구는 문화·업무·판매·주거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주상복합시설과 공공용시설 및 한강르네상스 워터프론트 부지(선착장)로 활용될 도시기반시설 용지가 조성되며 인근 왕십리 민자역사와 중랑천을 잇는 보행 네트워크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2010년 10월까지 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곳에 들어설 주상복합용지는 면적 2만2581㎡에 최고 42층, 461세대의 주거시설과 300석 규모의 공연장, 야외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체육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될 『살곶이공원』

태조 이성계의 매 사냥터로 잘 알려져 있던 살곶이공원이 문화와 체육공간으로 거듭난다. 현재 이곳에 각종 체육시설이 마무리 공사중에 있어 다음달이면 시민들을 위해 심터와 체육공간으로 개공할 것이며, 중랑천 하류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운동을 꾸준히 펼친 결과 그동안 철새가 꾸준히 찾아오고 어종도 다양화 되고는 있으나 우기시 악취가 발생했던 사체가 있던 만큼 하상을 새롭게 정비하여 사계절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생태체험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철새보호구역답게 탐조대와 형형색색의 꽃과 수목을 심어 중랑천 일대를 숲길과 생태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고 녹색산업을 이끄는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위해 인도와는 별도로 자전거길을 만들되 도로폭을 확장하여 각종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공연장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향토휴길도 확대포장할 예정이다.

중랑물재생센터 『수변문화복합공간』으로

서울시 10여개구의 분뇨와 하수 및 정화조를 처리하고 있는 806,563㎡의 중랑물재생센터는 총 사업비 9,510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존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의 유휴공간에는 대형공원 등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한다.

이미 정화시설 개선을 위한 고도처리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2월 1차 시설현대화 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까지 일부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물 과학관과 물 정원등을 조성하여 문화복합 및 생태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외곽의 베드타운으로 평가 되었던 동북권 지역에 2020년까지 총 18조원을 투입하여 서울의 경제·문화·산업 경쟁력을 선도하는 “신경제·문화 거점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중랑천을 따라 사람과 돈이 모이는 경제 문화도시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동북권 르네상스는 중랑천을 발전축으로 하고있는데

그 중심부에 성동구가 위치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곳을 한강 근자교간 4.9km구간에 뱃길을 조성하고 수상버스와 수상택시를 운영하고,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여 중랑천변을 문화 체육 생태 등 경관관리에 맞는 수변 복합공간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중랑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랑천변 일대를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동북권 경제 문화 경쟁력의 신 거점으로 집중 조성한다는 전략으로서, 이와 맞물려 한강르네상스의 구심점이자 동북권 개발계획의 시발점인 성수동이 서울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출처_성동구

사업전환 기술개발자금지원 - 중소기업청 사업전환 기술개발자금지원

parent.document.title = "『성수신도시』종합조성계획 발표 : 라펜트(Latent) 라펜트 뉴스팀, 강진솔_kegw@naver.com | 기사입력 2009-06-22

중기청, 사업전환기업에 R&D자금 지원 연계

중소기업청은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연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총 25억원, 30개 내외 과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7월 6일(월)부터 7월 30(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사업전환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전환 성공률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과제당 1억원 한도로 총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며, 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사업전환지원사업 로드맵에 따라 사업전환 자금 용자를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은 신청기간동안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새로이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전환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smtech.go.kr)의 “중기 사업전환기술개발지원공고”를 참조하고, 지원대상 선정발표는 9월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07~2008년 중소기업청은 74개 사업전환기술개발과제에 총 60억원을 지원했으며, 평균 3대의 경쟁률을 보인바 있다.

출처_중소기업청 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산림청은 “전국이 가물고 산이 메말라 산불위험이 아주 큰 상태”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객의 실수나 논·밭두령을 태우다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에서는 절대 화기를 휴대하지도, 사용하지도 말 것과 농촌에서도 논·밭두령 및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아 달라”고 간히 당부했다.

2009년 제2회 조경수조성관리사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안내

안녕하십니까? 2009년 제2회 조경수조성관리사 2·3급 최종 합격자를 협회 홈페이지 자격검정-합격자 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는 2009. 6. 29(월) ~ 2009. 7. 29(수)까지 자격 등록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셔서 반명함판 사진 2매와 함께 협회로 보내주시고, 자격증발급 수수료(50,000원)를 입금해주시면, 자격등록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방문하여 직접 등록도 가능합니다.(사진 2매 지참)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로 문의바랍니다.

(입금계좌/국민은행 420801-01-204019, (사)한국조경수협회)

헛개나무 추출물, 알코올성 간 손상 보호기능 공인

- 국립산림과학원, 전남대 공동 연구 -

헛개나무 열매자루(菓肉)로부터 추출한 다당체인 HD-1이 간 경화 방지와 알코올성 간 손상에 대한 보호효능이 탁월함이 밝혀졌다. 이는 국립산림과학원(특용수연구팀)과 전남대학교(나천수 교수팀)의 공동연구결과로,

임상실험은 경희대 약대 및 서울대 의대에 의뢰하였으며 간 기능 저하자군은 투여 12주후 GPT(67~47 U/L), 간 기능 손상자군에서는 γ -GTP(107~96 U/L)로 감소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지금까지 헛개나무의 간 기능 보호와 관련된 효능은 전통지식이나 동물실험을 통해 알려졌으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결과는 이번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알코올성 간 손상에 대한 보호 기능이 우수한 기능성식품으로 인증(제 2008-55호)받았다.

또한, 헛개나무는 양질의 밀원(蜜源)으로 아까시나무 보다 2배의 벌꿀생산량, 세계적인 약용꿀 '미누키' 보다 항산화활성 등 약리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헛개나무가 세계적인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로서 가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내 바이오산업에서 특정식물의 효능을 국내 연구진만의 자체 연구결과로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흔치 않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주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꽃은 양질의 밀원(蜜源)으로 벌꿀생산과 과병 생산을 촉진하여 재배농가의 소득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헛개나무는 갈매나무목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학명은 *Hovenia dulcis* Thun. 이며, 지구, 그 열매를 지구자라고 한다. 예로부터 본초학이나 식품도설에서 그 열매가 술독해독, 정혈, 이뇨, 갈증해소, 해독작용을 한다고 보고 되었으며 특히, 주독해소 및 간 질환에 효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전남대 농생대(연구책임자 : 나천수 교수)는 헛개나무의 효능을 세포실험에서 평가한 결과 사염화탄소로 간독성을 유발한 간세포에서 헛개나무 추출물이 LDH의 양을 감소시켜 간 보

호 효과가 있으며, 동물실험 결과 간독성물질인 알코올, 사염화탄소, LPS/D-galatosamine 등의 간독성물질에 의해 높아졌던 ALT(GPT), AST(GOT)의 수치들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쥐에게 알코올을 투여하고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된 결과 헛개나무 추출물을 먹인 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알코올분해효소(ADH), 아세트알데히드분해효소(ALDH)의 활성 또한 높여주어 체내의 알코올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경희대 약학대(연구책임자 : 정세영 교수)에서 간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 결과 간기능 저하자들에게서 증가되었던 ALT(GPT), AST(GOT)등 간 기능 관련 수치들이 유의성 있게 저하되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또한, 분당 서울대병원(연구책임자 : 장학철 교수)에서 과다한 음주로 간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알코올에 의해 간이 손상될 때 민감하게 증가되는 간수치인 γ -GTP는 물론 GOT까지 정상으로 회복되는 아주 좋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위와 같이 헛개나무의 간 보호에 대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세포실험, 동물실험, 두번의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헛개나무 과병으로부터 추출된 HD-1이 간 보호효과는 물론이고 알코올성 간 손상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기능성식품으로 인증을 받았다.

우리나라 벌꿀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아까시나무의 노화, 황화현상 등 쇠퇴에 따라 벌꿀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로 양봉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 특용수연구팀은 아까시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밀원수종 개발을 위해 10여년간 연구 끝에 꿀 생산량도 많고 벌꿀에 함유된 유용 물질도 많은 것은 물론 꽃이 많이 피며 과병 생산량도 많은 다수확성의 헛개나무 우수품종 '풍성 1호' 등 3품종을 육성하였다.

국내 바이오산업에서 특정식물의 효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흔치 않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주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립산림과학원 특용수연구팀의 헛개나무의 밀원수종으로의 개발 및 벌꿀생산과 과병생산 능력이 우수한 헛개나무 우수품종의 개발 보급은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학·연 공동연구에 의한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지원을 받아 1997년부터 특정연구과제로 시작되어 HD-1성분이 숙취해소, 간경화 방지 등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 연구책임자(나천수 박사)는 연구결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1년 농업과학기술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경희대 약대와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두 번의 임상실험을 거쳐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2009년 기능성식품 인정을 받은, 13년 동안 학연 공동연구결과의 결실이며 이후 연구를 계속하여 간 질환치료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문 의 : 국립산림과학원 김세현 박사

(031-290-1190 / 010-8553-6302)

지구온난화에 의한 산림피해 가시화, 소나무고사

- 소나무 고사원인과 미래 전망 -

급년 지구온난화와 맞물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무가 대규모(8,416ha, 97만본) 고사하였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함께 급년 2월과 3월의 이상고온이 지속된 바, 겨울철에도 잎이 달려있는 소나무들이 가뭄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대규모로 고사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구온난화로 이와 유사하게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침엽수림의 고사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미국 서부 지역에서도 1970년대 이후 고사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목이 고온과 가뭄스트레스를 받으면 병해충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아열대성 병해충의 월동이 가능해지며, 급속한 환경변화로 활력이 있는 천적이 감소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병해충의 창궐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가 아니더라도 천이초기종인 소나무는 사람의 도움이 없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른 수종으로 자리를 내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추세의 빠른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소나무림이 생활사를 완수하기에 적합한 분포범위를 보면 급세기 내에 강원도와 일부 높은 산지로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소나무의 특성, 최근 소나무 고사 현황, 고사원인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의 미래전망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임종환 박사
(02-961-2604)

국립수목원, 한국 희귀식물 목록 정리

- IUCN 평가기준을 통한 571종 희귀식물 수록한 목록집 발간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은 우리나라 전체 자생식물종을 대상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제시한 '멸종위기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총 571종이 희귀식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희귀식물종을 총 정리한 「한국 희귀식물 목록집(Korea Red Data Book)」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한국 희귀식물 목록집」은 2000년 이후 7년간의 우리나라 자생식물종에 대한 전국적인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표본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한 희귀식물 목록집으로서 IUCN 분류기준에 따라 야생멸종(EW) 4종류, 멸종위기종(CR) 144종류, 위기종(EN) 122종류, 취약종(VU) 119종류, 약관심종(LC) 70종류 및 자료부족종(DD) 112종류 등 총 7개 분야의 571종류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종별로 분포 및 평가, 보전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목록집에 의하면 다시마고사리삼, 무등풀, 벌레막이말, 파초일엽 등 4종은 이미 야생에서 멸종된 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무등풀은 우리나라 특산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희귀식물은 그동안 산림청에서 지정한 217종과 환경

부에서 지정한 멸종 1, 2급 62종이 있으나 국제적 기준에 의한 희귀식물의 목록 정리는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희귀식물종의 보전전략 수립 및 복원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립수목원장은 관련기관, 학계, 지방자치단체, 공사립수목원 등과 희귀식물종에 대한 최신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고 희귀식물에 대한 지속적 조사·모니터링과 보존·복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영문판 Korea Red Data Book을 곧 발간하고 이를 IUCN에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장은 관련기관, 학계, 지방자치단체, 공사립수목원 등과 희귀식물종에 대한 최신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고 희귀식물에 대한 지속적 조사·모니터링과 보존·복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영문판 Korea Red Data Book을 곧 발간하고 이를 IUCN에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이병천(031-540-1052)

산림청, 상반기 녹색일자리사업 통해 서민일자리 6만6천개 창출

- 노동집약적 일자리로 서민층 경제난, 실업해소에 기여 -

산림청이 올해 상반기에 숲가꾸기, 산불 및 산림병해충방제, 임도·사방담·등산로 및 숲길 정비, 숲해설가 등과 같은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농·산촌 및 여성 실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총 6만6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계획 : (연초) 50,402명 → (추경) 12,561명
(1,590억원) → (계) 62,963명

※상반기 일자리 창출 실적 : 66,487명

숲가꾸기 등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사업은 총 15개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농산촌 및 여성 실업자 등 금융위기로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위주로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으며,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타 사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숲가꾸기사업(공공산림가꾸기)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 숲가꾸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기술교육 및 자격증 소지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무급 휴직자 및 소득이 없는 자

-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1,125천원 이하인자나 그 배우자 우선 선발

상반기중 세부사업 분야별 성과로는

① 숲가꾸기사업 136천ha, 묘목생산 36백만본, 경제수 조림 19천ha 등을 추진하여 일자리 3만6천개(연인원 3,752천명) 창출 및 산림자원화를 통한 숲의 가치 증진

② 산불전문예방진화대(1만명), 산림보호감시원(6천명)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1천명) 등으로 일자리 1만7천여개(연인원 2,362천명)창출 및 산불 등 산림재해 방지

③ 숲가꾸기산물 30만㎡ 수집, 펠릿제조공장 4개소 건설(펠릿 2천톤 생산), 펠릿보일러 2천대 보급 등의 사업으로 일자리 4천개(연인원 509천명)창출 및 산림부산물의 에너지화 기반 마련

④ 입도조정 123km, 사방댐 건설 473개소, 도시숲 및 생태숲 조성 270개소, 등산로 정비 350km, 산촌생태마을 99개소를 조성하여 일자리 5천개(연인원 657천명)창출 및 산림경영기반 조성

⑤ 숲해설가, 수목원코디네이터, 숲길조사회원 등 산림서비스도우미 1,500명을 운영(연인원 222천명)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

⑥ 기타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30개소, 해외조림 6,400ha, 산림연구 인턴 등 일자리 500개(연인원 57천명) 창출

한편 산림청은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지방비확보, 산물수집 등)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 및 녹색일자리사업 참여자 고용을 7만명까지 유지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 제공과 산림박람회 개최, 녹색일자리 희망캠페인, 녹색일자리 참여자 수기공보 등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녹색일자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사업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문의 : 산림청 녹색일자리창출팀 이종갑 사무관
(042-481-4037)

구하였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좋게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의 69%가 사유림인데, 사유림은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아 산주들이 산림관리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대부분 방치된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산림청은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사유림을 매수하여 국유화하는 것이다.

특히 산림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목재자원뿐만 아니라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산림의 기능 발휘가 최대화 될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탄소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24%에 불과한 국유림률을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간 약 2,000억원씩 총 8조7천9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유림을 국유화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추세면 9월안에 올해 사유림매수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사유림을 파실 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입야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미리 예약을 해야 내년 상반기에 매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에서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황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정책으로 781만ha의 사유림을 국유화한 사례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재정을 투입해 사유림을 보다 많이 매수할 때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문의 :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고연섭 사무관
(042-481-4095) (042-481-4037)

산림청, 올 상반기 8,600여ha 사유림 매수

- 올해 사유림 매수 목표의 81% 완료 -

산림청은 재정조기 집행을 따라 국유림확대를 위한 사유림매수 사업을 상반기 중에 올해 목표량의 81%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사유림매수 목표는 10,592ha(31,587천평), 매수예산 1,054억원으로 이중 81%인 8,610ha를 예산 907억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매수 완료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유림 매수 면적(1,759ha)에 비하면 무려 5배나 많은 것으로 특히 올해는 경제사정으로 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산림청의 사유림매수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총 예산 1,054억원 중 50%인 527억원이었으나 매도물량이 쇄도하는 바람에 목표액의 172%인 907억원을 초과 집행하였고, 작년 상반기 집행액 206억원에 비해 4.4배나 확대 집행함으로써 경제난 극복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에 사유림매수계획과 도시림조성을 위한 산림서비스매수 대상지 공모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였고 매수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산지매수은행' 기존 국유림 주변 사유림에 대한 정보, 매수요청된 사유림 정보 등 매수가능한 사유림의 정보 저장은행'을 풀가동하는 등 전력을

산림청, 녹색성장 국민 아이디어 공모

산림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발맞추어 국민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녹색성장 산림분야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산림정책에 반영코자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7.13~7.31까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모내용은 산림경영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대 정책, 산림바이오에너지 정책, 청정인산물 육성 및 산업화, 국산목재 이용촉진 방안,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저감 방안, 산림휴양·문화 증진 등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사업으로 일반국민이나 공무원은 누구든 참여가능하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자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30%), 적용가능성(30%), 파급효과(20%), 효율성(20%)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최우수작품 1점에 대해서는 상장 및 시상금 100만원, 우수작품 2점에 대해서는 상장 및 시상금 각 50만원, 아이디어작품 3점에 대하여는 상장 및 시상금 각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공모담당자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신선하고 산림부문 녹색성장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많은 아이디어가 제안되길

기대하며 많은 국민과 공무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녹색성장 개념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생산과정에서 녹색기술·지식 투입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자원을 확충하는 지속적 생산력을 제고하며 에너지·환경 및 경제 간의 순환 구조를 이루는 원리

문의 : 산림청 산림정책과 유복용 주무관(042-481-8853)

“녹색사관학교”교육생 모집-전액무상교육, 장학금지급

(주)한국조경신문 녹색사업지원센터에서는 녹색산업과 환경보호산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관련업계가 각 분야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여 최고의 인재육성과 의욕있는 최고의(예비)전문가 분들과 함께 미래의 녹색과 환경보호 산업분야를 개척하고자 “녹색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형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하반기 실무형 “녹색사관학교” 교육생모집〉

- ◎ 현장실무형 전문가 육성
- ◎ 2년제 기술형 교육
- ◎ 전액 무상교육, 장학금 지급
 - 서류마감 : 2009. 7. 7 ~ 7. 31.
 - 면접 : 2009. 8. 3. ~ 8. 13.
 - 합격자 발표 : 2009. 8. 14.
 - 개강 : 2009. 8. 17.

■ 개설과정

- 최고관리자 과정
- 식물재배 전문가 과정

■ 모집정원-각 과정별 10명 내외

■ 전형절차-1차 서류마감 : 홈페이지(www.mygreen.or.kr)에서 지원서 내려받아 작성뒤 이메일(academy@mygreen.or.kr)접수

-2차 면접

■ 교육장소

- 학습 : (주)한국조경신문 녹색지원센터(지하철 8호선 암사역)
- 실습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및 전국 주요 전문 단지 자세한 사항은 (주)한국조경신문 녹색사업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488-2554

2009년 제3회 조경수조성관리사(필기) 원서접수 안내

한국조경수협회에서는 조경수조성에 관한 전문가 양성 및 전문직업인 개발을 위하여 제3회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검정을 시행합니다.

☞ 원서접수기간은 2009. 8. 31(월) ~ 2009. 9. 4(금)까지이며, 인터넷접수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일반회원) 회원가입 후 접수요망]

※ 2급의 경우 경력증명서 (개인사업자 경력증명 발행시 필히

의료보험납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첨부,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졸업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또는 응시자격 요건이 안될 시(추후 통보후 환불)는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하고 수수료 입금한 후, 협회에서 입금확인을 해드리면 수검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필기구, 신분증과 함께 수검표를 지참하여 오시면 됩니다.

☞ 부득이 인터넷 접수를 못하시는 분은 응시원서와 사진 2매, 2급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로 9월 4일까지 보내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에서 응시원서 및 경력증명서 다운받으면 됨.

※ (9. 4일까지 입금완료자 접수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협회에서 추천해드리는 관련 도서는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출제기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 수수료는 2급 50,000원, 3급 30,000원 입니다.

※ 수수료 입금처

국민은행 420801-01-204019 한국조경수협회 (필히!!!) (※ 2009년 9월 4일까지 입금 되어야 함.)

☞ 문의사항 : 한국조경수협회 02-961-2988~9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 207 국립산림과학원내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국가공휴일 및 토, 일은 휴무입니다.

산림청 나무심기 '우수'사업으로 선정

- 35개 정부부처 재정사업 평가 실시 -

산림청의 나무심기 사업이 정부의 우수 재정사업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35개 정부부처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20억원을 투입한 조림사업은 식재목의 활착률이 높고 정책품질 향상도가 뛰어난 사업으로 평가됐다.

35개 중앙부처 346개 중 우수사업 19개

기획재정부는 35개 부처의 '08년도 346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조림사업을 포함한 19개 사업(상위 5.5%)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산림청의 조림사업은 92%의 높은 활착률과 정책품질향상도 83.6점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정부의 재정사업 전체 20%에 이르는 70개 사업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의 경우 조림사업과 함께 평가된 재정사업은 모두 6개로, 이중 조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모두 '보통'으로 평가되어 미흡한 사업은 없었다. <표 참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편성시 우수사업은 예산을 늘리는 반면 미흡사업은 내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매우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폐지까지도 검토되고 있다.

우수사업은 예산증액, 미흡사업은 삭감

산림청은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조림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 바이오순환림 조성, 산림재해 복구조림 등 나무심기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윤영균 산림자원국장은 "나무심기가 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앞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푸른 숲에 대한 요구도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나무심기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차경희 사무관(042-481-4185)

나라꽃 무궁화 우수작품 한자리에 모였다

- 산림청, 전국에서 출품한 무궁화 분화 1,200여점
품평회 열어 -

지난 1일 열린 '무궁화 분화 품평회'에서 단체부문 대상에 '충청남도'가 개인부문 최우수상에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백종하'씨가 선정돼 각각 대통령상과 산림청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제19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에 앞서 인천세계도시축전행사장 꽃전시관과 송도 컨벤시아 일원에서 개최한 이번 품평회에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출품한 약 1,200여점의 작품(개인상 출품 45점)이 출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단체상은 분화, 개인상은 분화·분재를 대상으로 심사해 전체적인 무궁화의 생육상태, 외관상 균형미와 안정감, 조화와 자연미 및 품종특성에 따른 꽃의 모양과 고유 색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자체와 개인이 오랫동안 공들여 재배·관리 해 온 무궁화에 대해 심사를 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시·도별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14인의 예비심사에서 10개 기관과 24점의 개인작품을 예비 수상작품으로 선발했으며, 선발된 예비 수상작품을 6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본 심사에서 최종 5개 단체상과 24개 개인상에 대해 대통령상을 포함한 순위를 결정했다.

품평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전 서울시립대 이정식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한 충청남도의 출품작품은 외관상 균형미와 안정감을 주면서도 품종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잘 재배되었고,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전 한밭수목원 출품작품은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잘 발휘되면서도 흠이 없고 수간, 가지, 잎의 생육상태 및 외관상 균형미가 돋보이고 꽃, 잎, 가지가 자연스러운 무궁화 고유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고기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해를 더할수록 무궁화 품평회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배 기법 등에 대한 연구가 발전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무궁화 관련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민간 분야도 시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품평회 수상작품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8일 열리는 제19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막식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임원필 사무관(042-481-8862)

국·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제도 도입 시행

- 산림청「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8월 11일 시행-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공립수목원을 조성할 때 수목원 조성 예정지를 지정·고시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시행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여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공립수목원을 조성할 때, 종전에는 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밟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은 5년이내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1회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예정지 안에서 산지·농지의 전용이나 수목의 벌채·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시설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 국도·고속도로·공항·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관하여 산사태 등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의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고시 후 추진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 법령에는 현행 수목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중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을 전시원·생태관찰로·전시온실 등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각 전시시설에 대한 세부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산림청장이 수목원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증한 교육과정 인증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인증 받지 않고 표시한 자에게 종전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벌 처분을 시정하여 법률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서식지 확보를 위한 국·공립수목원 조성 사업을 보다 적극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식물자원의 보존·연구기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2009년부터 경북 봉화에 시행하는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을 위해 금년 개정 법령에 따라 8월 중에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2009년부터 경북봉화에 (면적) 5천만㎡, (사업비) 2,300억원, (사업기간) 5년으로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을 추진 중이다.

문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이순옥 사무관(042-481-4248)

**한국조경수협회 경남서부지부
(100만그루나무심기운동본부)**

- 기부금품 모집 종료 공고 -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단 체 명 : 한국조경수협회 경남서부지부
- 소 재 지 : 진주시 초전동 1076-6 초원빌딩 3F
- 대표자명 : 김 광 호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08. 07. 18
- 등록번호 : 제2008-02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구분	합계(천원)	현금(천원)	물품(천원)	비고
합계	300,426	224,096	76,330상당	

※ 물품 : 현수 아팝나무의 23종 263본(현수자 3명)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 현금 : 224,096천원 중 시민 기념식수목 구입비 3,976,000원 사용
- 물품 : 초전공원 팡팡나무 외 20종 151주, 가좌산 걷고싶은 보행로 메타세 퀘이어 외 2종 111주, 평거녹지대아팝 나무 1주 이식 완료

